

‘예루살렘의 대기실’ 제르바 섬 유대 문화의 인식론적 특성 연구*

임 기 대

(부산외대 HK교수)

◆ 국문초록

토착 베르베르인이 자리하고 있는 제르바 섬에는 유대 문화가 공고히 자리하고 있으며, 유대인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흔적이 섬 곳곳에 남아 있다. 제르바 섬은 예루살렘 이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유일한 성지이자 ‘예루살렘의 대기실’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흔적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문명 교류, 이슬람과 유대인, 베르베르의 공존과 상생 관계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전후한 마그레브 3국의 유대인 상황과 역사에서 전개된 유대인의 현재적 상황을 짚어본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의 대기실’이라 불리는 제르바 섬 유대 공동체에 대해 살펴본다. 마그레브의 다른 국가처럼 제르바 섬 또한 여러 문화적 분열 현상을 겪는 곳이다. 그럼에도 제르바 섬은 역사 속 예루살렘의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식론적 ‘단절’(rupture)인가 혹은 ‘연속성’(continuity)인가의 문제 검토는 유의미해 보인다. 이는 ‘예루살렘의 대기실’ 제르바 섬에서 오늘날까지 유대인이 어떻게 지역에서 공존과 공생을 할 수 있었는지, 프랑스 식민지배와 이후 과정은 어떻게 갈등 관계를 불러오며 공존 방식의 ‘단절’을 이루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본고를 통해 제르바 섬의 유대 문화 정체성,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갈등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제르바섬, 예루살렘, 유대인, 프랑스, 인식론, 이스라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22221)

1. 머리말

마그레브(Maghreb) 지역의 토착민은 베르베르인이다. 이 지역은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주류 문화로 자리하고 있지만 기저에는 베르베르(Berber) 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임기대 2021c). 특히 모로코와 알제리에서는 베르베르어가 아랍어와 더불어 공용어의 지위를 갖고 있다¹⁾. 현재는 아랍이 주류로 자리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인은 베르베르인이 아닌 민족으로는 처음으로 마그레브 지역에 들어온 민족이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기록물에 대한 얘기는 그저 전설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이브 라코스트 지음, 김정숙 외 옮김 2011:176).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슬람 이후의 11세기 전후 시기, 혹은 19세기 이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통한 유대인의 생활 기록물을 살펴봐야 한다. 그만큼 유대인과 관련한 내용은 무훈시를 비롯한 신화적 소재로 치부되면서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탈식민화의 이데올로기가 마그레브 지역을 강타하면서 유대인은 거의 소멸해가고 있지만, 남아 있는 곳이 있다. 튀니지의 ‘제르바(Djerba 섬)’²⁾이다. 이곳은 유대인의 유일한 아프리카 내 성지이자 ‘예루살렘의 대기실’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라’ 중 하나가 보관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전후하여 마그레브 3국(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의 유대인 상황을 비교해본다. 마그레브 3국 유대인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2000년 동안 마그레브 유대 역사에서 전개된 유대인의 현재적 상황을 짚어보려는 의도이다.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의

1) 모로코는 2011년, 알제리는 2016년에 베르베르어를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인정하였다. 베르베르 문화가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면에서 두 국가는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한다.

2) 마그레브 지역에서 가장 큰 섬이다. 리비아와 가까운 튀니지 동쪽 지역에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항공 직항 노선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대기실’이라 불리는 제르바 섬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본다. 베르베르어와 마찬가지로 마그레브 3국의 유대인은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분열 현상을 겪었다³⁾. 그럼에도 제르바 섬은 예루살렘과의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는 곳이다. 이는 예루살렘과의 연관성, 그리고 ‘공생과 상생’이라는 맥락에서 ‘단절’(rupture) 혹은 ‘연속성’(continuity)이란 인식론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의미한 내용을 제시해줄 수 있다(Mourad Boussetta 2020:259)⁴⁾. 즉 ‘예루살렘의 대기실’ 제르바 섬에서 오늘날까지 유대인이 어떻게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흔적을 이어가고 지역민과 공존할 수 있었는지, 프랑스 식민지배는 어떻게 갈등 관계를 불러오면서 공존 방식의 ‘단절’ 패러다임을 이루게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명 교류의 공존과 갈등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상황과 문화, 종교 관련한 문헌 연구, 제르바 섬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하였다.

II. 프랑스 식민지배 전후의 마그레브 유대인 공동체

이번 장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마그레브 3개국(모로코, 튀니지, 알제리)의 유대인 공동체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에서 유대인 공동체의 특징과 차이점, 식민지배 방식의 차이점을 발

3) 흔히 ‘베르베르어는 하나이면서 여럿이다’라는 말로 마그레브 지역의 특징을 얘기하곤 한다(임기대 2021c:95).

4) 이 문제는 토마스 쿤(Thomas Kuhn)과 같은 과학사의 ‘혁명’(revolution)인가 아닌가의 논의와 관련됐을 수 있으며, 소쉬르의 ‘구조’(structure), 촘스키의 ‘언어학의 혁명’(linguistic revolution) 개념과도 관련된다(Sylvain Auroux 1986). 하지만 개별 영역의 개념은 과학과 역사, 언어 등의 문제를 보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는 게 연구자의 생각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본고에서는 생략하겠다.

견할 수 있으며, 특히 제르바 섬과 이 지역 유대 공동체만의 특징을 별도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1. 프랑스 이전의 유대인 공동체

2020년 12월 10일 모로코와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아랍·이슬람을 내세우는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국교 수립이라는 게 그렇지만⁵⁾, 양국 간의 역사적 뿌리가 이렇게 깊었을까 매우 의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랍·이슬람 국가 모로코의 법령을 보면 양국이 얼마나 역사적인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모로코는 2011년 개정 헌법 서문에서 모로코 문화가 아랍·이슬람, 아마지그, 사하라-하사니아⁶⁾가 결합된 것이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한 안달루시아, 지중해, 히브리 유산의 자양분을 통해 풍부해졌다’⁷⁾고 밝히고 있다.

마그레브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박규현 2021).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5세기경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마그레브 지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전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처럼 이때부터 유대인은 1948년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재건할 때까지 떠돌게 된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튀니지의 제르바 섬을 비롯하여 마그레브 전역(티아렛, 페스, 시질마사⁸⁾ 등)에 파편적으로 정착하

5) 여기에는 분쟁지역 서사하라 문제가 있었다. 당시 미국은 서사하라의 모로코 영위권을 인정해주고, 대신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 복원을 추진했다. 이를 중간에서 연결해준 세력은 당연히 모로코 출신의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임기대 2021a).

6) 여기에서 ‘아마지그’(Amazigh)는 베르베르어 혹은 베르베르인을 가르키는 토착어이다. ‘하사니아’(Hassanya)는 모로코 남부, 모리타니아, 서사하라,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아랍어 방언 혹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7) “Son unité, forgée par la convergence de ses composantes arabo-islamique, amazighe et saharo-hassanie, s'est nourrie et enrichie de ses affluents africain, andalou, hébraïque et méditerranéen. [...]” (모로코 2011 개정 헌법 서문, https://www.amb-maroc.fr/_maroc/institutions.html)

게 된다. 그들은 토착민인 베르베르인과 공존하였고, 베르베르인의 유대교 개종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로마제국 치하에서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하거나 박해에 저항하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했고, 특히 황제가 비잔틴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더욱 그러했다(이브 라코스트 지음, 김정숙 외 옮김 2011:174). 이후 아랍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은 무슬림과 같이 공존하였다. 흔히 ‘딤미’(Dimmi)’의 지위를 보장받으며 살았지만 이후 ‘레콩키스타’(Reconquista)가 진행되면서는 무슬림과 함께 추방 대상이 되었다. 유럽 국가로 흘러들어가기도 했지만, 오늘날의 모로코와 알제리, 튀니지로 대거 흘러들었다. 이들을 흔히 ‘세파르딤’(sephardim)이라 불렀으며, 토착민인 베르베르인,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베르베르인, 이미 마그레브 지역에 있던 유대인과 합쳐졌다. 유럽의 세파르딤과 다른 지점이 여럿 있겠지만 이들은 베르베르인이나 기존의 유대인과 공존했다는 점에서 세파르딤과 다른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내의 ‘미즈라힘’(Mizrahim)을 볼 때 명확히 드러나 보인다¹⁰⁾.

모로코와 알제리, 튀니지에서 유럽의 세파르딤 거주 공간은 보호를 받았다. 명확한 이유는 없지만 당시 안달루시아 문명이 마그레브 지역보다 더 우위에 있었고, 경제적 지위 또한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달루시아 유대인들은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자신들의 땅인 이베리아 반도에 갈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
- 8) 티아렛(Tiaret)은 알제리 중서부에 있으며 수도 알제에서 약 300km 정도 거리에 있다. 시질마사(Sijilmasa)는 알제리와 모로코에 면해 있는 모로코 오아시스 도시이다. 사하라 대상로의 핵심도시였지만, 현재는 거의 소멸해간 도시로 남아 있다.
- 9) 이슬람 지배 하에서 살아간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일컫는다. 이들은 개인의 신앙, 생명, 재산을 인정받지만 정치적으로 복종할 의무와 납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10)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슈케나지(Ashkenazi)와 미즈라힘(Mizrahim)의 유대인이 주류와 비주류를 가르고 있다(임안나 2019:7-8). 여기에서 세파르딤은 양 진영에 속하지만 모로코의 비 안달루시아 출신 ‘유대인’은 ‘미즈라힘’에 속하며 이스라엘 내 유대인 ‘소수자’에 속한다.

다르게 살아가고자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그레브 유대인이 안달루시아 출신의 유대인과 대립한 것은 아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적대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토착민인 베르베르인 또한 적대적 관계 속에서 아랍이나 유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다¹¹⁾. 베르베르인이 아랍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 것은 유럽의 프랑스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베르베르 공동체가 아랍과 대립각을 세운 것과 같이¹²⁾, 유대인 공동체가 아랍과 다른 지점을 갖게 된 것 또한 프랑스의 식민 지배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는 마그레브 3국을 대하는 프랑스의 식민 전략과도 맞닿는다.

2. 프랑스 이후의 유대인 공동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그레브 3개국(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1830년 프랑스는 알제리의 시디 프레즈(Sidi-Fredj)¹³⁾를 점령함으로써 본격적인 알제리 침략의 서막을 알렸다. 프랑스의 알제리 침공은 아랍과 베르베르는 물론 아랍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흔드는 사건이기도 했다. 프랑스는 베르베르인과 마찬가지로 알제리 내 유대인에 대해 유화정책을 폈다. 대표적인 것이 1870년의 크레미외(Crémieux) 법이다. 이 법을 통해 유대인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고 프랑스는 유대인과 무슬림을 분리하고자 했다(문종현 2017:12).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은 유대-아랍 사회에서 갖고 있

11) 이베리아 반도의 무슬림(아랍이든 베르베르인)은 레콩키스타 이후 유대인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이베리아 반도를 떠난 이후 마그레브 지역에서는 대립 구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래서 모로코와 알제리에 쉽게 동지를 틀 수 있었다(임기대 2019).

12) 모든 베르베르 부족이 아랍과 대척점에 있던 것은 아니다. 지역별, 부족별로 프랑스의 식민 지배 이후에도 아랍과 관계 맺기는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임기대(2021c)를 참고할 수 있다.

13) 현지인들은 시디-페뤼슈(Sidi-Ferruch)라고도 부른다. 수도 알제 서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이다. 항구 도시라고 하지만 거의 섬과 같은 정도로 작은 길이 육지와 연결점을 형성하고 있다.

던 생활 방식에서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1940년 비시(Vichy) 정부(1940-1945)가 들어서며 잠시 국적을 잃기도 했지만, 독립해인 1962년 동향의 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알제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피에-누아’(Pied-noir,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인)와도 같은 존재로서 프랑스에 안착했다. 오늘날 알제리에서 유대인은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 금기시 되고 있는 용어이다. 특히 서사하라와 관련하여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있고, 알제리는 이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튀니지의 경우 알제리와는 달랐지만¹⁴⁾, 유대인의 경우 적극적인 교육 정책을 통해 유인하고자 했다. 세속화, 정교분리, 동화로 특징 지워진 당시의 프랑스 문화는 프랑스어의 매력까지 더해 유대인에게 사회적 지위 상승의 동력이 되었다. 그 결과 1924년과 1939년 사이 6천 명 이상의 유대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 아랍과 유대인의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했고 여기에는 프랑스의 개입이 가장 결정적이었지만, 이탈리아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Claude Hagège, Bernard Zarka 2001:9). 하지만 알제리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비시 정부 들어 잠시 국적을 잃게 되었고, 유대인 신문이 폐간되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알제리와는 달리 독립 당시(1956년) 100,000명 정도에 달한 유대인이 튀니지에 있었다. 현재는 1,3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중 대부분이 제르바 섬에 있다. 이 섬에 정착한 유대인은 기원전 587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부터이며, 아랍 세계의 마지막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세파르딤과는 역사적 기원을 달리하면서도 예루살렘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모로코는 튀니지와 마찬가지로 보호령이었기 때문에 알제리와는 약

14) 튀니지의 경우 베르베르 정체성과 관련하여 알제리와 모로코, 심지어 리비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미약하다. 프랑스가 아랍과의 분리 정책을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집단은 유대인밖에 없었다.

간 다른 모습이었다. 유대인은 프랑스 대도시 등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튀니지와 유사하게 세계이스라엘연합(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 AIU)¹⁵⁾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에는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경제 활동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이브 라코스트 지음, 김정숙 외 옮김 2011:177). 전반적으로 무슬림과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이 공존할 수 있었지만, 독립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독립 이후 모로코를 떠나 프랑스와 이스라엘에 동지를 텃다. 현재 이스라엘 내 약 90만 명의 모로코 출신 유대인이 있으며, 2020년까지 네타냐후 정부 각료 중 약 1/3을 모로코 출신 유대인이 차지하기도 했다. 서사하라의 모로코 영유권에 모로코 출신 유대인이 힘을 실어주고 있어 알제리, 말리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임기대 2021a).

이렇듯 마그레브 유대인들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 하에서 상대적으로 프랑스의 배려와 혜택을 입었지만, 지역에서 불기 시작한 아랍민족주의 운동으로 서서히 반유대적 상황에 직면하였다. 게다가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은 또 다른 대결 국면을 야기하며 마그레브 지역에서 탈식민화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탈식민화 정책은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이 취한 범아랍주의(Panarabisme)나 범이슬람주의(Panislamisme)에 기반한 정책이었으며(송금영 2020:177) 유대인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탈식민화 정책은 마그레브 3국의 공통된 입장이었지만, 유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3개국 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조금씩 달랐다. 그 결과 유대인의 이주 과정, 현재 제르바 섬을 비롯한 유대인의 상황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15) 1860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유대인 문화협회이다. 모로코, 튀니지는 물론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전파하였다. 특히 튀니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남녀 학교를 설립했지만, 제르바 섬의 경우 공동체가 큰데다 유대 전통을 고수하려는 입장이 강하여 쉽게 들어가질 못했다.

https://fr.wikipedia.org/wiki/Histoire_des_Juifs_%C3%A0_Djerba (3장 참조).

3. 독립 이후의 유대인 문제

모로코의 경우 독립 전, 그리고 독립 후에는 하산 2세(1961-1999)가 집권하면서 이스라엘로의 이주가 빨라졌다. 하산 2세는 이스라엘과 매우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¹⁶⁾. 1973년 이스라엘과 중동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더 많은 모로코 유대인이 프랑스와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그 결과 1948년 268,000명이었던 유대인은 현재 약 68,000명이 조금 넘는 수만 모로코에 남아 있다¹⁷⁾. 모로코 출신 이스라엘 거주자가 2-3세까지를 포함하면 9십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엄청난 이주를 했다고 볼 수 있다(임기대 2021a).

알제리의 경우 대다수 유대인이 프랑스와 협력 관계에 있었기에 독립과 동시에 알제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모로코와 튀니지와는 달리, 알제리는 8년 동안 독립전쟁(1954-1962)을 치렀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매우 컸다. 독립을 하지 않고 프랑스에 협조적인 하르키(Harki, 독립전쟁 당시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군 협조자들)를 비롯하여 유대인, 피에누아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알제리의 독립과 동시에 떠나야 했고, 프랑스 국적을 얻은 유대인들 또한 이들과 함께 알제리를 떠나야 했다. 결국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140,000명이었던 유대인은 현재 수백 명 정도만이 아랍인지, 베르베르인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 워낙 아랍화정책을 강하게 진행하고 있었기에 자국 내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아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16) 하산 2세는 집권 초창기에 두 번의 쿠데타를 경험했고, 이때마다 이스라엘 정보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아랍 국가이지만 이스라엘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모로코 출신 이스라엘 유대인의 배후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아크람 벨카이드 2018). 하산 2세의 아들 무함마드 6세 또한 선친의 경험을 토대로 이스라엘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그 결과 모로코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모로코는 반정부 인사, 대 테러작전, 정부부 문제 등에 대해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Nissim-Samuel Kakon 2019:365).

17) 『모로코 개황』 2018. p.84. 외교부.

튀니지의 경우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아랍 국가로 인식되었지만, 독립 당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튀니지는 독립 직후인 1958년 아랍연맹에 가입하면서 튀니지 내 유대인의 불안감을 고취시켰다. 1967년 제 3차 중동전쟁 이후에는 튀니지의 시나고그(Synagogue)가 공격을 받기도 했으며¹⁸⁾, 유대인들은 프랑스로 대거 이주했고, 일부는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이스라엘 건국 당시 튀니지 거주 유대인이 110,000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이며, 그 수 또한 대부분이 제르바 섬에 있다. 약 천 여 명의 유대인이 있지만, 제르바 섬은 2,500년 동안의 역사에서 4,500명을 넘어선 적이 없는 작지만 견고한 공동체이다.

마그레브 국가의 유대인 공동체는 붕괴를 거듭해가며 이스라엘과 프랑스, 스페인 등으로 이주해갔다. 그렇다고는 해도 마그레브 지역에서의 유대인의 기억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늘날 모로코 출신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연 5만 명씩 방문해 오고 있고, 모로코와 이스라엘 수교를 통해서 그 수는 2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¹⁹⁾(임기대 2021a:76). 튀니지는 모로코만큼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해마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유대인이 제르바 섬을 방문하고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르바(Djerba) 섬의 유대인 공동체는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되새겨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제르바 섬은 예루살렘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준 유일 공동체와도 같기 때문이다.

18) 제 3차 중동 전쟁을 비롯한 비제르타(Bizerte) 위치, 시나고그 테러 등에 대해서는 3장을 참조할 수 있다.

19) 특히 양국 간 수교를 통해 모로코는 텔아비브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양국 직항로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농업과 제조업, 항공 산업에서 이스라엘은 모로코에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임기대 2021a).

III. ‘예루살렘 대기실’ 제르바(Djerba) 섬의 유대 문화

상술한 바와 같이 마그레브 3국의 유대문화가 동일하면서도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인 데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따른 영향이 크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 과정은 유대인의 대 아랍인에 대한 인식, 문화적 거리감을 갖는 배경이 되었다. 이점에서 프랑스 문화의 이식은 기존 사회와의 ‘단절’을 맞볼 수 있게 했을 것이다. 프랑스 이전의 마그레브 유대인은 아랍과 공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처럼 독립 이후 이런 공존의 흔적 또한 거의 사라져갔지만, 제르바 섬에는 유대인 문화가 공존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튀니지 유대 문화가 어떠한지, 적어도 제르바 섬의 유대 문화를 통해서만 인식론적 ‘연속성’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제르바 섬 유대문화의 유래

유대인이 제르바 섬에 도착한 시점은 성경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네 부카드네자르(성경 이름: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이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기원전 586년 무너진 이후 유대인들은 제르바 섬에 도착했다. 레콩키스타 이후에는 이베리아 반도를 비롯하여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의 유대인이 이곳으로 몰려왔다²⁰⁾. 유대인들은 아프리카에 가장 큰 유대교 회당인 그리바 시나고그(Ghriba Synagogue)를 세웠다. 이곳 교회당 기둥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파괴시 파괴된 문과 건물에서 가져온 것으로 그리바 시나고그를 만들어 ‘예루살렘의 대기실’(Antechamber of Jerusalem)이라고 불린다(Lucette Valensi & Abraham L.Udovitch 1984:9). 그만큼 종교적 측면에서 거룩한 땅에 속하고, 예루살렘과 직접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

20) *Courrier international*, “Tunisie.Le blues des Juifs de Djerba”, 2016.07.22.

서는 유대인의 지역 내 기원이 안달루시아에서 온 세파르딤과는 다른 지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솔로몬 성전 시절의 제사장인 코하님(Cohanim²¹)이 20세기까지도 그리바 시나고그 일대에 밀집해 있었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사실이다. 예루살렘과의 역사적 연관성에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002년 이곳에서 테러²²)가 발생하면서 그리바 시나고그에 대한 접근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르바 이슬람 사원²³)

그리바 시나고그

제르바 유대인 가정집²⁴)

〈사진〉 그리바 시나고그 사진

제르바 섬 유대인 역사가 문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슬람의 침략 이후부터이다. 당시 지중해 문명의 특징 중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을 제외 한 여타 문명은 거의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였다. 페니키아와 로마 문화 일부가 박물관 등에 보존되고 있지만 유대인 문화에 대해서는 기록물에 나와 있지 않다²⁵) (박규현 2021:99). 토착민인 베르

21) 코하님(Cohanim)은 원래 유대인 최고위 성직자 계급을 가리키는 말로서 솔로몬왕 시절, 예루살렘의 신전에서 신성한 의무를 맡아 하던 자들을 지칭한다.

22) 차량 폭탄 테러로 당시 관광객 21명이 사망했다. 알카에다가 배후로 의심됐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그리바 시나고그는 방문객 접근과 입장이 현재까지 불가능하다(위쪽 가운데 사진 참조).

23) 제르바 섬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평등과 공존을 지향하는 이바디즘 성격을 보인다. 현대 들어 과거와는 다른 이슬람 수니 계열 침투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바디즘의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

24) 현재 유대인 가정은 집단을 이뤄 현지인과 살아가고 있다. 2002년 테러 발생 이후 많은 유대인이 프랑스와 이스라엘로 떠났지만 일부가 남아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옥은 위의 오른쪽 사진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한다.

베르인의 문화 또한 여타 문명권과 교류했던 기록물은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지역 패권을 주도한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시칠리아와 베르베르인 간의 문화 교류에 대한 흔적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만²⁶⁾(임기대 2022). 구전문학이나 음악 등에서도 교류에 대한 흔적은 이슬람이 들어온 이후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르바 섬 유대인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이는 마그레브 유대인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에서 왔는지, 유대교로 개종한 베르베르인이 오늘날의 유대인인지, 늘 논쟁의 중심에 있다. 튀니지의 유대인 또한 이런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²⁷⁾ 확실한 것은 제르바 섬의 유대인 공동체가 문헌에 등장한 것은 중세 이슬람의 지배기부터라는 것이다(Claude Hagège 1980:47). 상술했듯이 중세시대에는 유대인에 대한 기록은 물론 베르베르인에 대해서도 여러 흔적이 존재해왔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제르바 섬 유대인은 교역 일에 가장 충실했을 것이다. 지중해 무역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는 카이로의 게니자(Guenizah) 기록물²⁸⁾(11세기), 13세기까지 시칠리아와의 왕성한 무역 교류, 지중해 무역 과정의 노예, 포로생활 등에 대한 기록에서 유대인의 등장은 유대인이 지중해 무역에 광범위하게 등장했음을 증명해준다(시오노 나나미 지음, 김석희 옮김 2009). 제르바 섬에 유대인이 오랫동안 이슬람과 공

25) 유대인의 제르바 섬 유입은 고대부터 있어 왔다는 것은 증거물이 없을 뿐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https://fr.wikipedia.org/wiki/Histoire_des_Juifs_%C3%A0_Djerba

26) 시칠리아와 베르베르 간의 문화 중 음식인 생선 쿠스쿠스는 오늘날까지 튀니지와 알제리의 해안가, 시칠리아에서만 먹는 음식으로 10-11세기 이슬람의 점령 이후 기록으로 남아 있는 문화적 흔적이다(임기대 2022).

27) 이 점에서 마그레브 유대인 연구 전문가인 로베르 브룬슈비그(Rober Brunschvig 1940:396)는 의미 있는 말을 하였다: “On se contetera de tenir pour assuré qu’au moyen-âge des groupes berbères judaïsants y coexitaient et avaient en partie fusionné avec des colonies juives venues d’Orient”.

28) 870-1880년 사이 유대인에 의해 기록된 200,000개의 사본을 일컫는다.

https://fr.wikipedia.org/wiki/Gu%C3%A9niza_du_Caire

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의 독특한 이슬람 종파와 무관치가 않아 보인다. 특히 이 섬이 이바디즘(ibadimse)이 개화한 특별한 공간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이바디즘은 일반적으로 쉬아와 수니와는 비견되는 이슬람의 또 다른 종파로 마그레브 지역의 독특한 문화 지형을 일구는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임기대 2020b), 마그레브 지역 초창기 이슬람화에 절대적 공헌을 한 이슬람 종파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바디즘에 대한 언급을 하는 역사학자는 그리 많지 않을 정도로 소수로 전락하였다.

이바디즘은 정통 ‘칼리파 시대’²⁹⁾에 나온 하와리지(Kawarijii, ‘이탈자’의 의미³⁰⁾)의 일파로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4대 칼리파 시대가 무너지자 대거 마그레브 지역으로 도망해왔다. 초기 마그레브의 이슬람은 이들 중심의 이슬람으로 재편됐으며, 이 중심에는 베르베르인이 있었다. 로스탐(Rostem, 767-909) 왕조를 세운 페르시아인 압데라흐만 엘-로스탐(Abderahman El Rostem)은 베르베르인 모자비트족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왕조를 지역에서 번성시켰다. 이후 수니 이슬람에 밀리면서 이들은 오늘날의 알제리 음자브(M’zab)³¹⁾ 지역과 튀니지의 제르바 섬에 등지를 트며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이바디즘은 비폭력 노선을 견지하지만 타문화에 대해 관용적이다. 대신 자신들의 문화를 해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편이다. 어쨌든 이들이 피신한 지역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이외에도 이집트의 바알신, 태양신 아몬(Amon) 등 농사와 관련된 신의 세계관을 갖고 있던 곳이다(Mohamed Messen, 2015:53). 이 모든 종교가 공존할 수 있던 것은 유대 문화가 ‘공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동인이 되었다.

29)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 사후 4명의 이슬람 칼리파가 통치한 시기이다. 총 4명의 칼리파 중 쉬아파는 4번째 칼리파인 알리(Alī)만 인정하고 있다.

30) 이바디즘에 대한 내용은 임기대(2020b, 2020c)에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31) 수도 알제에서 약 600km남쪽의 사하라 북쪽 지대에 있다. 인구는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종교적 관용에 대해 지역 베르베르인 모자비트족은 크게 개의치 않지만,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를 가진 종교 공동체이다.

제르바 섬 유대문화의 기원과 유래는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한 가지로 재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섬에는 유대 문화가 있었지만, 동시에 이슬람의 독특한 관례와 다른 종교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오랜 기간 동안 마그레브 지역에서도 유대 문화를 지켜낼 수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제르바 섬의 유대인은 베르베르인, 아랍, 특히 이슬람 이바디즘과 수백 년을 공존해왔다. 오늘날에는 폐쇄적인 지역으로 유명한 사하라의 음자브 지역에도 약간의 유대인이 남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바디즘의 종교적 관용이 오히려 유대 문화를 존속시키게 할 수 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의미에서 갈등과 대립의 중재 역할은 이슬람 이바디즘, 그것도 베르베르인이 신봉한 이바디즘을 통해서였을 것이며, 마그레브 지역에서 유대 문화가 ‘공존’의 ‘연속성’을 가늠케 해준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통도 프랑스의 식민 지배와 더불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2. 프랑스의 식민정책과 제르바 섬 유대문화

프랑스는 1881년부터 1956년까지 튀니지를 보호령으로 삼았다. 아랍과 유대인이 별문제 없이 공존해 살았지만 프랑스의 보호령 전후로 튀니지 유대인은 아랍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모로코와 알제리에서 유대인을 비롯한 베르베르인이 아랍과 대척점을 이룰 수 있던데 반해, 튀니지의 경우 아랍화 한 베르베르인은 존재감이 없었고, 오히려 유대인의 존재감이 더 큰 국가였다³²⁾. 인접 국가 알제리와 모로코, 리비아와 비교해서도 튀니지의 베르베르 전통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면서 오랜 세월을 걸쳐 아랍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튀니지의 프랑스에 대한 예속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³³⁾. 가장 대

32) 1870년 당시 튀니지 국민은 대략 백만 명을 헤아렸다. 15,000명(프랑스인 800명) 정도가 유럽인이었고,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30,000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Claude Hagège 1980:36).

표적인 사례가 AIU이다. AIU는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유대인 문화 협회로 튀니지를 비롯한 마그레브 지역에서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 전통 등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프랑스어와 문화 전파의 역할을 담당했다³⁴⁾. 튀니지 유대인은 프랑스의 교육 정책을 통해 신분 상승의 호기를 맞이할 수 있었기에 AIU나 프랑스의 식민정책에도 비교적 호의적이였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랬으며, 공동체 차원에서도 유대인은 비교적 프랑스에 호의적이였다(Claude Hagège, Bernard Zarka 2001:13). 이런 유대인을 프랑스를 비롯한 당시의 유럽 열강들이 이용하려 경쟁했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프랑스였다. 지리적 인접성으로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유리한 지점에 있었지만 프랑스의 영향력을 따라잡진 못했다. 튀니지 유대인들은 독립 이후 각각 프랑스와 이스라엘로 떠났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 중 극히 일부만 이탈리아로 갔고 프랑스에 동화하거나 이스라엘로 떠난 것이다. 천년 이상을 아랍과 별문제 없이 살아온 유대인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 이후 더 이상 튀니지 영토에서 살 수 없던 데에는 1961년의 ‘비제르타 위기’(Bizerte crisis)³⁵⁾와 1967년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여파가 컸다. 유대인 공동체는 프랑스화하거나 이스라엘에 호의적으로 태도 변화가 생기면서 무슬림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졌다. 이렇듯 지역에서 유대인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오랜 기간 무슬림과 공존했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대립 관계로 돌아서게 되었다.

33) 튀니지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교육 제도를 따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아랍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있다. 하지만 워낙 학제 교육이나 가정, 사회에서 프랑스어는 외국어이지만 동시에 교육어로 자리 잡고 있어 쉬운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튀니지는 교육 분야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마그레브 국가이다.

34) AIU는 튀니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남녀 학교를 설립했지만, 제르바 섬의 경우 유대 공동체가 워낙 커서 쉽게 들어가질 못했다.

https://fr.wikipedia.org/wiki/Histoire_des_Juifs_%C3%A0_Djerba

35) 수도 튀니스의 북쪽 65km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이다.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튀니지였지만 이 항구 도시는 프랑스가 점유하고 있었고, 프랑스 정부는 확장 계획까지 밝혀 튀니지 정부가 1961년 해군 기지를 봉쇄하면서 양국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630명의 튀니지인, 24명의 프랑스군이 사망했으며, 1963년 도시와 해군기지가 프랑스에 양도되었다.

어쨌든 튀니지 유대인은 눈에 띄게 프랑스 문화 정책을 쉽게 따랐다. 유대인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이들의 아랍어 구사 능력은 모국어와 진배없었기에 프랑스와 튀니지 토착민 간에 중재자적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³⁶⁾. 하지만, 제르바 섬의 경우는 양상이 조금은 달랐다. 워낙 유대인 공동체가 크기도 했고, 세파르딤과는 결이 다른 이들만의 유대 역사와 문화를 2,500년 이상 지탱해왔기 때문이다. 상술했듯이 제르바 섬 유대인은 AIU의 교육을 거부했다. 세속 교육이 목표인 프랑스 교육이 종교적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대도시의 고위직 유대인을 통해 설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제르바 섬의 유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제르바 섬 유대인은 프랑스의 식민지배, 프랑스에 협조하는 유대인의 지지도 거부했다. 이들은 식민정책 자체를 부정하며 자신들의 삶의 관행을 따랐다. 그 결과 제르바 섬의 유대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공동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정체성이 외부로부터 위협받을 시 이들이 대처한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³⁷⁾. 이런 점에서 제르바 섬 유대문화는 현지 유대인이 말하듯 자신들만이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는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⁸⁾. 그 래서인지 제르바 섬의 그리나 시나고그를 ‘예루살렘의 대기실’로 부르고 있다. 다른 어떤 마그레브 지역의 유대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예루살렘과의 연관성, 독자성, 자부심 등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6) 알제리에서는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비슷한 현상이 카빌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프랑스는 카빌인(Kabyle)을 자신들의 식민 정책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고, 이들은 프랑스 내 첫 마그레브 이주민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의 노동 시장에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이미 자국 내에서 프랑스 문화를 많이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임기대 2021b).

37) 튀니지 내의 랍비들조차 제르바 섬 유대인 공동체를 가르켜 ‘비천함과 무지에 갇힌 공동체’로 표현하기도 했다(Lucette Valensi & Abraham L.Udovitch 1984:20-21). 그만큼 다른 유대인 공동체와 결을 달리했던 것이다.

38) 종교적인, 문화적인 관점에서 현지인들은 제르바 유대 문화가 예루살렘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단지 ‘예루살렘의 대기실’이라 불리는 그리바 시나고그를 통해 지역 유대인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찾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3. 제르바 섬 유대문화의 인식론적 특징

제르바 섬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는 인식론적으로 ‘단절’(rupture)인가 혹은 ‘연속성’(continuity)인가의 복잡한 양상을 보이지만, 지역 문제를 들여다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Mourad Boussetta 2020:259). 이 문제는 제르바 섬 유대인이 예루살렘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면서 왜 그토록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집착하며 지역민과 ‘공존과 공생’의 삶을 살았는지를 안다는 점에서도 중요해 보인다. 인식론적 맥락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예루살렘 유대인의 삶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제르바 섬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제르바 섬 유대인을 주목한다. 유대인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땅에서 탈출하여 제르바 섬에 제 2의 성전을 구축하고자했다. 제르바 섬을 통치한 지배 권력이 누구든 간에 유대인들과 공존하고 공생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제르바 섬 유대인은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을 비롯하여 심지어 아랍과 공존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딤미’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진 못했어도 아랍과 공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공존과 공생의 문제가 유대인의 개방성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³⁹⁾.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배는 튀니지 유대인이 아랍과 살아가는 데 있어 다른 선택을 강요받았다. 그럼에도 제르바의 유대인은 프랑스의 AIU로부터 강요된 교육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 삶을 선택했고, 이슬람과의 공존을 모색했고,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이어가길 바랐다. 이점에서 제르바 섬 유대인은 다른 곳과는 달리 공존과 공생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가 했으며, 그 결과 예루살렘과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왜 이 지역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대기실’로 주목받

39) 익히 알려졌듯이 유대인의 선민사상은 교류와 공존의 차원에서 우월의 논리로 작용한 면이 없지 않다. 그 결과 타자에 대한 계급적 혹은 배타적 인식이 깔리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다. 공존의 변수가 되는 것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이 지역 내 침투가 심상치 않게 벌어져 유대인을 위협하고 있는 점이다⁴⁰⁾.

둘째는 이슬람 베르베르 이바디즘이 지배 문화였기 때문에 제르바 섬 유대문화가 타문화와 공존과 공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슬람이 마그레브에 온 이후 제르바 섬 또한 이슬람화했지만, 이 지역은 이바디즘(ibadisme)이라는 이슬람 종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제르바 섬은 공교롭게도 튀니지 내에서 이바디즘이 존재하는 유일한 지역이며, 베르베르어권 지역이기도 하다. 앞서 상술했듯이 이바디즘이 어떤 종파인가를 상기해보자. 이바디즘은 아랍화 혹은 반 아랍 진영에 있던 베르베르인이 신봉한 이슬람 종파였다. 이들은 수니와 쉬아와의 대결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주장했고, 이들이 견지한 노선이 유대인과도 대결을 의미하지 않았기에 쉽게 공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곳의 이바디즘을 믿는 주체가 아랍이 아닌 베르베르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초기 마그레브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 최초의 이슬람 종파는 수니와 쉬아파가 아니었다. 당시 이바디즘이 첫 이슬람 종파로서 왕조 건립을 주도했고 지역의 이슬람화를 견인했다. 이후 수니 혹은 쉬아파 왕조에 밀리면서 이에 저항한 이바디파 신봉 베르베르인이 제르바 섬과 알제리의 음자브(M'zab) 지역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들 지역에서 베르베르인은 타자에 대한 종교적 개종, 사회적 차별을 드러내는 요소(가옥, 모스크, 의상 등)를 거부하며 평등과 평화, 공존의 삶을 택했다. 평화와 공존을 중요시하는 이바디즘 덕분에 베르베르인 또한 유대인과 공존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렇듯 제르바 섬에서는 프랑스의 식민지배 이전 ‘공존과 상생’의 삶의 패러다임이 있었고, 오늘날 유대인이 모두 떠난 튀니지에서도 제르바

40) 튀니지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 역내에서는 이스라엘과 모로코의 수교, 리비아와 알제리 테러집단의 튀니지 내 유입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평화와 공존의 공간 제르바 섬을 위협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섬만이 여전히 ‘공존과 상생’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두 가지에 더해 주목할 사안이 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베르베르인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유대-베르베르인’(judeo-berber)이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둘 간의 모종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튀니지 출신의 이슬라엘 내 유대인이 베르베르인과 혼합된 사람인지, 베르베르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해 간 것인지 등에 대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오랜 역사가 베르베르인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음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Nissim-Samuel Kakon, 2019)⁴¹). 제르바 섬 유대인의 특성 또한 베르베르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제르바 섬 유대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베르베르인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증거는 현재로선 없다.

IV. 나가면서

‘예루살렘의 대기실’이 있는 제르바 섬은 지정학적 위치로 침략과 공존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다. 지중해의 한 북판에서 교류와 혼종을 해온 이곳은 오늘날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글로벌화의 여정을 담고 있으며, 아랍 세계의 마지막 유대인 공동체가 살아 있는 곳이다.

제르바 섬에는 여러 이질적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큰 세력은 이슬람, 베르베르, 유대 문화이다. 기독교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본고에서 논의로 하고 있다. 이들 세 문화는 ‘공존과 상생’을 하였지만 어떤 지점에

41) 이스라엘의 공식 축일에 ‘미무나’(Mimouna)가 있다. 2014년 이스라엘 정부는 11월 30일을 마그레브 유대인 역사를 ‘미즈라힘 문화유산의 날’(Mizrahim heritage day)로 결정하여 기념하고 있다(임안나 2019). ‘미무나’가 베르베르인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후속 연구는 이 둘 간의 관계를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와서는 등을 맞대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프랑스의 식민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역민 간의 구도는 달라졌고,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 점에서는 독립 후 아랍주의에 맞선 지역 상황도 비슷해 보인다. 그렇다 해도 제르바 섬 유대문화는 여타 유대인과는 다른 공존과 상생의 ‘연속성’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예루살렘의 대기실’로 평가받는 그리바 시나고그는 이슬람 이전의 유대문화와 예루살렘과의 연관성을 추구한다고 보여진다.

다른 한편, 튀니지나 마그레브 사회에서 유대인과 관련한 부분은 매우 특이한 지점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식민지배와 이후 독립 과정에서 선택한 노선은 과거의 ‘공존’과는 다른 ‘갈등과 대결’의 국면을 초래했다. 제르바 섬이 있는 튀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튀니지 내 유대인 사회는 거의 붕괴되었다. 하지만 제르바 섬의 경우는 소수이지만 여전히 ‘공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단지 유대인만의 저항의 메커니즘 혹은 그들의 선민사상에 따른 폐쇄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의 연장선상에서 공존하고 지속될 수 있던 유대 문화의 존속 배경에 이 지역 문화의 ‘특이성’인 이바디즘에서 찾아볼 수 있음에 주목했다. 지역의 이바디즘적 특성이 끝없이 갈등하는 아랍과 유대인 간의 갈등을 중재해주는 요소는 아닌지. 적어도 제르바 섬의 경우를 볼 때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르바 섬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에 있어 예루살렘과의 인식론적 ‘연속성’을 갖게 해주는 중재자가 이바디즘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후속 연구에서는 유대인과 베르베르인의 문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문종현(2017), 「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와 시민권-식민지 보수주의-」, 『서양사론』, 제 134권, 한국서양사학회, 9-38.
- 박규현(2021), 「유대인의 마그레브 정착과 유대교화한 베르베르인에 대한 연구」, 『한국프랑학논집』, 제 115권, 한국프랑학회, 91-116.
- 송금영(2020), 『아프리카 깊이 읽기: 오천년 역사와 문화, 대외관계를 읽다』, 민속원.
- 시오노 나나미,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세계』, 김석희 역(2009), 한길사.
- 아크람 벨카이드(2018), 「늑고 병든 마그레브의 취약한 권력자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 19-18.
- 이브 라코스트. 『마그레브 북아프리카의 민족과 문명』, 김정숙 외 역(2011), 한울아카데미.
- 임기대(2010), 「독립 후(1965~1978) 알제리의 언어교육정책 : 탈식민화 정책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연구』, 제 52집, 프랑스학회, 359-384.
- 임기대(2019), 「안달루시아와 마그레브에서 베르베르 부족 ‘바누 이프렌’(Banu Ifren)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 57집,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339-367.
- 임기대(2020a), 「모로코와 알제리에서의 ‘히락’과 베르베르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110집, 한국프랑스학회, 163-191.
- 임기대(2020b), 「중부 지중해지역의 이슬람 ‘소수자-되기’에 관한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59집, 한국아프리카학회, 116-144.
- 임기대(2020c), 「중부 지중해 지역의 ‘산하자’ 베르베르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112집, 한국프랑스학회, 191-221.
- 임기대(2021a), 「모로코와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 복원과 서사하라 문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 23권 1호, 부산외대 지중해지연원, 71-100.
- 임기대(2021b), 「모로코와 벨기에의 베르베르 ‘디아스포라’와 ‘베르베르

- 되기’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114권, 한국프랑스 학회, 215-242.
- 임기대(2021c), 『베르베르 문명: 서구중심주의에 가려진 이슬람과 아프리카의 재발견』, 한길사.
- 임기대(2022) 「시칠리아 이슬람화 과정과 베르베르인의 문화 흔적 양상 -쿠스쿠스를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제 24권,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115-139.
- 임안나(2019), 「시온주의 국가건설이 남긴 파편들: 이스라엘 유대인사회의 에스닉 범주와 정체성」,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 Vol.1 No.5.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7.
- Claude Hagège, Bernard Zarka.(2001), “Les Juifs et la France en Tunisie: Les bénéfiques d'une relation triangulaire”, *Le Mouvement social*, n°197. 9-28.
- Claude Hagège.(1980), “Communautés juives de Tunisie à la veille du Protectorat français”, *Le Mouvement social*, n°110. 35-50.
- Lucette Valensi & Abraham L.Udovitch.(1984), *Juifs en terre d'Islam: les communautés de Djerba*, Éditions des archives contemporaines.
- Mohammed Messen.(2014), *L'Islam tolérant et pacifiste: Bref aperçu sur l'histoire et les principes de l'ibadisme*, Alger: El Ibriz.
- Mourad Boussetta.(2020), *Minorités religieuses et dynamiques identitaires en Tunisie: Ibadites et Juifs à l'épreuve du tourisme et de la révolution*, Thèse de Université Laval.
- Nissim-Samuel Kakon.(2019), *Itinéraire d'un Juif franco-marocain*, Clermond Ferand. Auteurs du monde.
- Rober Brunschvig.(1940), *Les Berbérie orientale sous les Hafsidés des origines à la fin du XV^e siècle*, tome 1. Paris.
- Sylvain Auroux.(1986), “Histoire des sciences et entropie des systèmes scientifiques”, *Archives et documents de la Société d'Histoire et*

d'Epistémologie des Sciences du Langage n°3. 1-20.

Courrier international(2016), “Tunisie.Le blues des Juifs de Djerba”,
07.22.

『모로코 개황』(2018), 외교부.

인터넷 자료

모로코 2011 개정 헌법 서문,

https://www.amb-maroc.fr/_maroc/institutions.html (검색일 2022.02.13.)

제르바 섬 유대인의 역사

https://fr.wikipedia.org/wiki/Histoire_des_Juifs_%C3%A0_Djerba
(검색일 2022.02.28.)

게니자 기록물 https://fr.wikipedia.org/wiki/Gu%C3%A9niza_du_Caire

(검색일 2022.03.11.)

❖ ABSTRACT

A Study on the Epistemological Characteristics of
Jewish Culture in Djerba Island with the
‘Antechamber of Jerusalem’

Lim, Gida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Berber people, natives of the Maghreb region, are located on the island of Djerba, where Jewish culture is firmly established. In addition, traces of connection with Jerusalem, the center of the Jewish community, persist throughout the island. The island of Djerba is the only holy place for Jews outside Jerusalem. It is also well known as the ‘Antechamber of Jerusalem’ and preserves its traces relatively well. Therefore, Djerba Island is a very meaningful place as it can look at the exchanges of Jewish diaspora civilization, coexistence, and win-win relationship between Islam and Jews, and Berb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ntechamber of Jerusalem’, this paper aims to briefly examine the Jewish situation in three Maghreb countries (Morocco, Algeria, and Tunisia) before and after French colonial rule, and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Jews in the region developed in history. Next, we will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wish community on the island of Djerba, called the ‘Antechamber of Jerusalem’. Like the rest of the Maghreb region, the island of Djerba is also a place of cultural division. Nevertheless, the memory of Jerusalem remains the strongest in history on the island of Djerba. In

this sense, it seems meaningful to examine the issue of epistemological ‘rupture or ‘continuity’. This shows how Jews were able to coexist and co-exist on the island of Djerba, the ‘Antechamber of Jerusalem’, and how the French colonization and subsequent process led to a conflict and a ‘rupture’ in the coexistence. Therefore, through this paper,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Jewish cultural identity of the island of Djerba, coexistence, and conflict of civilization.

Key Words : Djerba Island, Jerusalem, Jew, France, Epistemology, Israel

- 논문투고일 : 2022. 05. 09
- 심사완료일 : 2022. 05. 31
- 게재확정일 : 2022. 06. 02